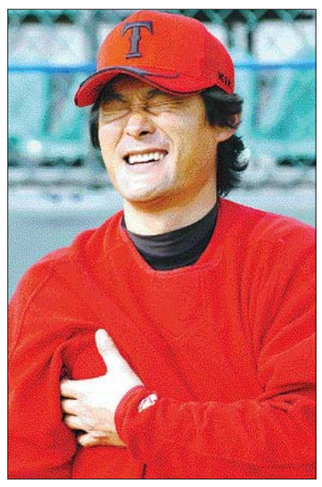
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KIA "고참 연봉 깎기 힘들다"

구단 '2억+α' 카드 이종범 "…"

심재학 삭감 거부땐 구단 협상 철회 고려

이현곤·한기주 인상폭 놓고 '줄다리기'



2008년도 연봉협상에서 대폭 삭감 원칙을 세운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이종범(37·외야수), 이현곤(27·내야수), 한기주(20·투수) 등 핵심 선수들과의 막판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프랜차이즈 스타' 이종범이다.

막판 연봉협상을 지휘중인 이영철 KIA부단장은 19일 "이종범, 심재학(35·외야수) 등 고참급 고액 연봉자들과의 협상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폭 삭감원칙은 그대로 이지만 이종범의 경우 그동안 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만나봐야 알겠지만 옵션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단장은 "모든 선수들의 연봉 협상을 스프링 캠프(내년 1월 9일)를 떠나기 전까진 해결할 방침이지만, 늦으면 1월 말까지도 갈 수 있다"면서 "고액 연봉자들의 경우 구단의 방침상 감액 상한선(전년도 연봉의 40%)을 넘을 수 밖에 없다"며 대폭적인 삭감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올 시즌 연봉 5억원인 이종범은 규약대로 감액 상한선을 지켜질 경우 내년 시즌 연봉으로 3억원을 받는다. 그러나 선수가 동의할 경우 감액 상한선 이상으로 감액할 수 있다.

아직 정식 협상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이 부단장과 이종범은 감액 상한선의 초과에 대해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KIA는 옵션으로 연봉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봉협상의 시작점은 올 시즌보다 60%가 삭감된 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봉 2억 5천만원을 받고도 손바닥 부상 등으로 25경기에 나서 51타수 12안타, 타율 0.235의 부진한 성적을 보인 심재학 역시 대폭 삭감 대상자다.

구단은 조범현 KIA감독의 요청으로 일단 심재학에 대한 연봉협상에 들어갔지만, 본인이 고액 연봉을 고수할 경우 협상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올 시즌 맹활약한 '타격왕' 이현곤과 '특급 마무리' 한기주는 팀내 최고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인상은 아니다.

이 부단장은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잘해줬다. 하지만 팀 성적이 좋아야 선수에 대한 대접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일단 최대한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인상폭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KIA는 이날 현재 2008년 연봉 재계약 대상자 55명 가운데 37명과 재계약을 했다. 이 중 연봉 인상자는 윤석민, 신용운, 손영민, 오준형, 양현종, 이범석, 문현정, 박정규(이상 투수), 김연훈(내야수) 등 9명에 불과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내 볼 넘보지 마" 19일 오후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창원 LG - 전주 KCC와의 경기에서 LG 박범재(왼쪽)와 KCC 추승균이 서로 먼저 공을 잡기 위해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KCC가 68-65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李 '4번' 사수 비상

요미우리, 거포 라미레스 영입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우타자 알렉스 라미레스와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시즌 선보일 핵타선의 윤곽이 결정됐다.

동시에 '예비 4번 타자' 라미레스의 영입으로 이 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이승엽(31·사진)의 노력도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는 19일 인터넷판에서 요미우리가 자유계약선수(FA) 라미레스와 2년간 10억엔(추정치)에 합의했고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라미레스 측은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FA로 풀린 뒤 4년간 28억엔을 내걸고 다른 구단과 협상에 나섰으나 접근하는 구단이 없자 2년 10억엔으로 액수를 낮추면서 요미우리와 협상에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외야수 라미레스는 야쿠르트에서 7년간 활약하며 홈런왕1회, 타점왕2회 등을 차지했고 통산 타율 0.301을 기록 중이다.

정교함과 파워를 동시에 겸비했고 올해는 204안타로 센트럴리그 우타자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세웠다.

라미레스가 요미우리 유니폼을 입으면 중심 타선도 달라진다.

요미우리는 올해 이승엽(30개) 등 4명의 좌타자가 홈런 30개 이상을 쏟아내며 '좌타군단'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우타 거포가 없어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도 일본시리즈 진출권은 포스트시즌에서 2위 주니치 드래곤스에 내주고 말았다.

왼손엄지를 수술한 이승엽이 재빨리 회복해 4번 주포 자리를 지킨다면 라미레스-이승엽-오가사와라, 또는 오가사와라-이승엽-라미레스로 이어지는 핵타선이 구축된다.

이승엽의 회복이 더디다면 라미레스가 4번에 포진하고 오가사와라, 이승엽 두 좌타자가 3, 5번에 배치되는 타순을 그려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7일 5천만엔이 깎여 연봉 6억엔에 재계약한 뒤 "내년 4번 타자의 책임감으로 팀을 일본시리즈 우승으로 이끌겠다"던 이승엽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여서 4번을 놓치지 않으려는 라미레스와 이승엽의 불꽃 경쟁이 스프링캠프서부터 각축을 이룰 것으로 점쳐진다.

"두산 리오스 야쿠르트행 확정적"

"2년간 몸값 3억엔"

스포츠닛폰 보도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가 전 두산 베어스 에이스 다니엘 리오스(35)와 계약에 거의 합의했고 금주 중 입단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닛폰'이 19일 인터넷판에서 전했다.

이 신문은 야쿠르트가 오릭스 버펄로스 등 경쟁 구단을 물리치고 2년간 총액 3억엔(추정치)에 리오스를 붙잡았다고 덧붙였다.

연봉 8천만엔과 옵션 7천만엔 등 1년간 총 1억5천만엔을 제시했던 오릭스가 전날 공식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리오스의 야쿠르트행은 확정적이었다.

'스포츠닛폰'은 1선발로 뛰었던 세스 그레이싱어가 2년간 5억엔에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이적했고 이시이 가즈히사도 자유계약선수(FA)로 세이부 라이온스로 옮기면서 야쿠르트가 선발진 구성에 서둘러왔다면서 리오스가 그레이싱어를 대신할 중심 선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야쿠르트는 이미 사이드암 임창용(31)과 계약을 마쳤고 리오스마저 데려가면서 한국 프로야구를 주름 잡았던 선수들로 마운드 전력을 살찌웠다.

리오스에게 금주까지 답을 달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던 두산은 다른 외국인 투수를 물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만에서 활약했던 두뇌파 투수 게리 레스를 재영입하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약물 복용한 적 없다"

MLB 클레멘스 재차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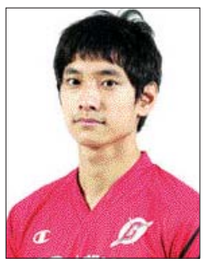
미국프로야구 선수들의 약물 복용 실태를 폭로한 '미첼 보고서'에서 가장 큰 충격을 안겨 준 '로켓맨' 로저 클레멘스(45)가 "절대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재차 강조했다.

클레멘스는 19일(한국시간) 에이전트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구를 하면서, 아니 내 인생을 통틀어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금지 약물을 복용한 적이 절대 없다. 그런 위험한 약물은 선수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어서 어떤 운동 선수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레멘스의 전 트레이너 존 맥나미는 '미첼보고서'에 클레멘스가 1998년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고 2000년과 2001년에는 스테로이드 및 성장 호르몬을 복용했다고 증언했다.

'얼짱 거포' 김요한 23일 프로 신고식

V리그 상무전서 첫 출전



'얼짱 거포' 김요한(22·인하대 졸업예정·사진)이 마침내 남자 프로배구 코트에서 신고식을 치른다.

보름여 지연됐던 LIG손해보험과 계약 문제를 매듭지은 김요한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리는 NH농협 2007~2008 V-리그 상무와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다.

박기원 LIG손해보험 감독은 "계약을 마무리했으니 테스트 차원에서 상무전에 뛰게 할 생각이다. 경기 내용을 보고 25일 삼성화재와 경기에 기용할 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LIG손해보험 지명을 받고도 계약 조건을 둘러싸고 구단과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18일 연봉 1억원에 사인했던 김요한이 드디어 프로 무대에서 기량을 평가받게 된 것이다.

키 2m의 장신인 김요한은 올해 인하대를 전국대회 4관왕으로 이끌었고 국가대표로 뽑혀 지난해 도하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혜택을 받은 뒤 올해 월드리그와 월드컵에서 뛰는 등 프로배구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인.

화끈한 스파이크 실력에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로 '오빠 부대'를 몰고 다녀 프로 출범 후 첫 정상을 노리는 LIG손해보험에 우승과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선사할 재목으로 꼽히고 있다.

김요한은 현역 최고의 스파이커 이경수, 엄창섭 등과 왼쪽 날개를 책임지며 특급 외국인 선수로 인정받은 올해 한국배구연맹(KOVO)컵 득점왕 기예르모 팔라스카와 공격의 3각 편대를 이룬다.

이경수가 퇴행성 디스크 관절염 판정을 받아 김요한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발목 부상에서 회복한 김요한은 "우승과 최고 신인 타이틀을 동시에 차지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김미현 무릎 수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뛰고 있는 '슈퍼땅콩' 김미현(30·KTF·사진)이 무릎 수술을 받았다.

10년 동안 왼쪽 무릎이 아파 어려움을 겪었던 김미현은 최근 '좌측 무릎 추벽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김미현은 3~5주 가량 재활 훈련을 받으면 통증이 없어질 뿐 아니라 근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콘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세(만원)	골프장	시세(만원)
광주	3,500	클럽900	6,200
남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순주	8,200	함평	7,400

상담문의 (062)351-0095